

# 새만금항 신항 · 군산항, 도약의 발판 마련

## 도, 새만금항 신항 접안시설 · 북측 진입도로 등 주요 공정 현황 점검 김 지사 “공정 · 품질 · 안전 최우선… 개장 일정 차질 없이 이행”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일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에 직접 찾아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군산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항 신항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 주요 시설의 공정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태, 항만 운영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접안시설(잡화부두 5만 톤급 2선식)과 북측 진입도로(연장 2.35km) 등 핵심 구조물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주요 구조물 공정 관리 △하역 · 물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항만 접근 교통 개선 △비상 대응 및 재난 · 안전 관리체계 등을 살폈다. 관계기관과 함께 개장 전까지 점검 항목별 후속 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김 지사는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군산 · 대신항만물류협회장, C대한통운 지사장, 군산항발전협의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등 항만 관계자 25여 명과 군산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항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급강하구역 상류구간 준설 요청 △유지 준설사업비 확대 건의 △상시 준설체

계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물동량 확대 측면에서는 7부두 해상 풍력 구조물 야적장을 활용한 풍량 부두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특송 화물 풍관장 내 검색기 2세트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항만 종사자들은 제2준설로 투기장 조기 완공과 상시 준설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전북도, 군산시, 부두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안을 지속 관리

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의 미래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공정과 품질,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력해 군산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지난 2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을 찾아 접안시설 등 핵심 구조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산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임실에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 정착 지원 본격화

## 51억 투입해 10호 조성 완료 · 4월 공고 후 5월부터 순차 입주 · 귀농귀촌 초기 부담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도내 26개소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귀농귀촌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귀농인의 집’, ‘전북에서 살아보기’, ‘유휴시설’ 활용 사업 등 다양한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1만호기자 · 임실=진홍영 기자

#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수여 받아

## 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농법 · 공동체 기반 인정… 전국 20호 지정 · 3년간 14억 원 투입해 보전 · 활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역의 환경과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 · 보전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 이후 이번 정읍 지황을 포함해 전국 20개소가 지정됐다. 전북은 이번 지정으로 부안 양장농업시스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총 3개소를 보유하게 됐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 역사와 전통 농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벗짚을 활용한 종근 소독 △토양 회복을 위한 윤작 농법 △야생 버찌 고추 농업기술이 현재까지 유지 ·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

또한 응동 · 칠보면을 중심으로 생산된 지황을 전량 수매해 가공 · 유통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농업유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과 재배 농가, 행정기관이 협력해 준비한 결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단독 선정됐다.

도는 이번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총 14억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투입해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 농업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이 조성,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기념하는 행사는 오는 3월 28일 정읍시 응동전통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1만호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도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전북 의용소방대 한자리에

##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익산 소방서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오숙 소방본부장,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수 · 윤영숙 · 김정수 도의원, 익산의용소방대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 3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원들에게는 재난의 최전선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여준 헌신과 봉사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서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기념식은 의용소방대가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서 많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다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



지난 20일 익산소방서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역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열정과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활약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 지원과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든든한 지역 안전 파수꾼”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소방과 의용소방대가 하나 되어 도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기자

# 도, 익산 · 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 익산 허가구역 206만에서 173만㎡로 축소… 주민 재산권 반영 완주 수수산단 165만㎡ 면적 유지… 예타 통과 후 후속 절차 고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수산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2년 연장 지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정을 확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에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했으며, 20일 관보 · 공보 게재를 통해 공식 공고했다.

이번 연장 지정은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효하다. 두 구역 모두 2023년 3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온 곳으로, 이번 결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연속성이 유지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왕궁면 발산 · 평장 · 흥암리 일원)는 연장 지정을 통해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약 206만6,000㎡에서 약 173만2,000㎡로 축소됐으며, 줄어든 33만4,000㎡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성 및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

서 제외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14개 신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익산 사업 일정이 지연된 점과 오폭 · 근남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을 면적 조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완주 수수산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 · 둔산 · 장구리 일원)는 기존과 동일한 165만㎡ 면적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완주 수수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면적 변경 없이 현행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익산 지정 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 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주 지정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80㎡, 상업 · 공업 지역에서 150㎡, 농지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1만호기자

# 도, 사료구매 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564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산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8,800억 원 중 17.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된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대금과 기존 고급료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 한도는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암소·유지자사자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 · 군(읍 · 면 · 동)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 · 축협을 통해 6월 17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1만호 기자

# 도, 곰소만 첫새우 맞춤형 어구 개발

## 어선 1척당 2000만원 이상 어획고 발생… 경제성 입증

전북특별자치도가 곰소만 연안 첫새우 자원에 최적화된 포획 어구 · 어법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경제성까지 확인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부안군청에서 ‘곰소만 연안 첫새우 자원조사 및 포획 어구 · 어법 개발 연구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 성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는 첫새우 포획에 특화된 신규 어구 · 어법(가칭 새우틀망) 개발이다. 해당 어구는 체중 예방식 밑틀을 형태로 설계돼 기존 방식 대비 효율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그동안 곰소만 해역은 첫새우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적합한 어구 · 어법이 없어 어업인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구사업을 추진해 현장 맞춤형

포획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과학적 자원조사와 실제 조업을 병행해 실효성을 검증했다.

연구는 곰소만 부근 해역 1,470ha, 13개 정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창 · 부안 어선 32척이 참여해 7월부터 9월까지 어장환경 조사와 어획통계 조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자원량 데이터와 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특히 첫새우 주 조업 시기인 7~8월에는 연구어업 참여 어선 1척당 평균 2천만 원 이상의 어획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어구 · 어법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곰소만 연안의 첫새우 어업권 포획량도 약 110톤 수준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곰소만 해역 특성에 맞는 첫새우 포획 방식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체계화하고,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현장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만호기자